

호세아 1:1~2:1

- 아래에 있는 연대표는 호세아의 사역기간과 그 시대적 배경을 요약한 것이다.
 - 호세아가 유다와 이스라엘 중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를 본문에서 찾으시오.

4, 6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
 - 다음 연대표와 1절의 설명을 비교하면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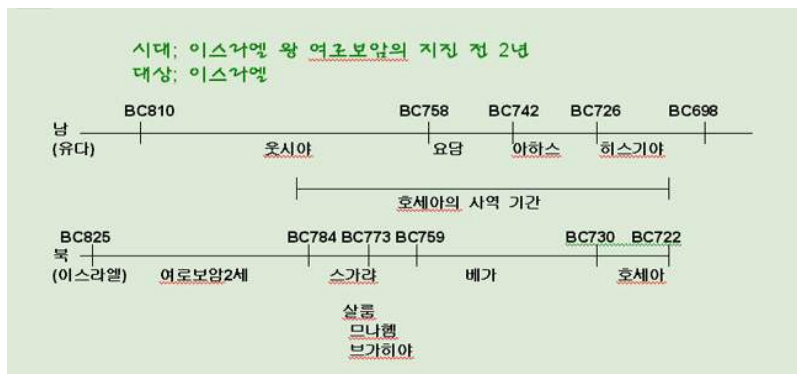
여로보암 왕 말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을 텐데 나머지 여섯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음
 - 왜 그랬을지 그 이유를 다음 배경과 연대표를 근거로 설명해 보자.

암살로 왕위를 빼앗은 왕들을 전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

시대적인 배경 (정확한 것은 아니며, 異見이 있을 수 있음)

유다 왕: 웃시야(BC810-758, 52년), 요담(BC758-742, 16년), 아하스(BC742-726, 16년), 히스기야(BC726-698, 28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BC825-784), 스가랴(BC773, 6개월 만에 암살됨), 살룸(BC 772, 1개월 만에 암살됨), 므나헴(BC 772-761), 브가히야(BC 761-759, 2년 만에 암살됨), 베가(BC 759-739), 호세아(BC 730-722, 앗수르에 망함)



- 아들의 이름을 끄찍한 이스라엘(잔혹한 학살의 피가 연상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파하실 것이라는 뜻)이라 지은 그 호세아의 경고 메시지는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왕(예후의 집왕가)
- 담임선생님이 자기 반에서 다른 반이 잘 하는 이야기를 하면 본받아서 잘 하란 뜻이겠지만 우선은 기분이 나쁘다. 마찬가지로 호세아의 어떤 말이 백성들이 듣기에 가장 싫었을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 자다가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교회를 때려 부수어라’고 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겠는가? 호세아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도 엉뚱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을 찾아보자.
 -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 그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 하라
- 앞날이 촉망되는 어떤 젊은 목사님의 결혼식에 초대 받아 갔더니 신부가 창녀였단다. 하객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 것이며 소문은 얼마나 널리 퍼져 나갔을까? “글쎄 멀쩡한 청년이 들었지 쫓쫓 아니 도대체 왜 그랬대?” 그 때 호세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내가 이렇게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렇게 결혼을 하였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미국사람들의 가장 큰 욕은 *God damn*이라고 배웠다. 무슨 뜻인가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별로 욕 같지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욕 같지 않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이 된 그들에게는 가장 심한 욕이 된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으로 푹푹 뭉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심한 욕이 될 수 있는 이름을 찾아보자.

로암미, 로루하마
- 여러 해 전에 일본에서 어떤 아이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었다가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다. 결국 취소했지만. 만약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욕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지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인 결과를 한 가지만 적어보자.

일본 전체가 시끄러웠다. 세계토픽에도 났으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나 결국은 취소되고 말았다. 호세아가 다른 점은 호세아의 이야기에는 꼭 하나님의 메시지가 따라다녔다는 점이다.

8. 요즈음 식으로 말해서 호세아는 방송을 몇 번이나 탔을까?
4번

9. 그 때마다 호세아는 자신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설명했을까?
결혼 때:

첫아들 때: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궁홀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둘째 아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10. 호세아에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가 널리 소문이 나기를 바람(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람) - 호세아를 시청각 교재처럼 사용하심

11.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신 상태가 어떤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랬다저랬다 하니까(현실과 미래가 혼재된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현재 상황은 현재로만 찾아서 읽으면 일관성이 보일 것이다)

12.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바로 사랑에 눈이 먼 경우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왜 그런지 호세아의 가정사를 이용해서 대답해 보라.

애당초 사랑해서 안될 여자를 선택한 것: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한 때문(복음서에 왜 날 사랑하나?),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였다.

13. 2:1절은 1장 끝에 붙여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인데 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로'는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이다.

14.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거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졌지만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견재하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가?

한 두목을 모시고 허다한 무리가 올라올 것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확장)

이스르엘(홀다) 이스르엘(심다) 로암미 암미, 로루하마 루하마

15. 너무나 참담한 결혼 생활이었기에 학자들 중에는 호세아의 삶이 실재가 아니라 가공의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호세아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가정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호세아서를 끝까지 공부한 후에 할 것.

자신의 고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인 것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것이다.

2절의 '비로소'란 표현은 좀 어색하다. 영어를 참고 하자.

When the Lord said to Hosea, the Lord said to him.

이스르엘의 피, 예후의 집: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예후를 통해 아합의 온 집안 사람들을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죽인 사건이 있다(왕하 9, 10).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고 바알 숭배를 금지시켰지만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악한 습성을 따랐으며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마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바로 예후의 3대 손이며 예후의 집이란 현 왕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스르엘의 두 가지 의미: 하나님께서 홀으신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온 집안이 홀어짐), 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호세아 2:2~23

1. 3절의 '그 나뉜 날과 같게 할 것이요'란 말은 '별거벗은, 광야, 마른 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일까?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2. 5-7절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 한 마디의 충고를 드리거나, 소감을 말해 보자.
하나님, 그만 포기하십시오. 마음이 변해버린 여자를 그렇게 까지 할 것 있습니까?(그래서 포기해 버렸으면 우리가 불쌍한 꼴이 되지 않았을까?)
3.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2세 때에 -비록 나라가 망하기 얼마 전이긴 하지만- 막대한 부와 번영을 누리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데 그것을 암시하는 내용은 몇 절에 있는가?
8절
4. 그런데 그러한 부와 번영을 정치적 동맹을 맺은 이웃나라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즐겼으며 동시에 그런 이방인들의 악한 습성과 불의한 삶도 따르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은 몇 절인가?
5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린 것이 불행의 근원이 된다. 물론 나라가 튼튼해지자 부와 번영이 따라 온 것이다.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견 정당해 보인다. 우리가 애써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5. 11, 12절에 각종 명절을 폐하고 포도원과 무화과 농장을 수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벌의 우회적인 표현이다.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말인가?
사람은 이민족에게 포로가 되고(자신의 명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 농토는 사람이 없거나 전쟁으로 황폐화된 상태
6. 14절의 '그러므로' 앞에 이 말의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본문에는 원인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보충한다면 어떤 말이 필요할까?
징벌로 인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라는 말이 어울린다.
7. 아골 골짜기는 야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와 그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은 그 골짜기이다. 즉 극심한 환란(괴로움)을 의미하는 골짜기조차 마음을 돌이키면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가?
소망의 문
8. 나, 하늘,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스라엘(=이스라엘을 의미)은 모두 '응(대답)하고'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21절). 거꾸로 읽는다면 '요구하고'라고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땅은 하늘에 무엇을 요구하고 하늘은 땅에 어떻게 응한다는 말인가?
비를 내려달라
9. 남편이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다수결로)
10. 2장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가?
바람난 아내의 머저리 같은 남편
11.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부부(천지를 창조하시고 곧 바로 결혼제도를 세우신 것도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경적 결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다)
12. 2장은 바람난 아내를 둔 남편의 닳두리 같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들 사이가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11)
13. 끝내 돌이키지 않을 경우 이 여인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형벌을 한 마디로 요약해 보자.
모든 것을 빼앗김(별거벗겨짐, 식량, 절기)
14. 남편의 이처럼 애타는 절규에 대한 아내의 대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15.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마음이 또 변하시는가?
일정한 기간 벌을 준 후에 개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장가들어 살 것
16. 왜 하필이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가? 거기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인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떡, 물, 양털, 삼, 기름, 술이 없는 곳(5,8,9) - 우리도 영적인 삶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방해물(각종 오락기구, 놀이, 음식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17. 소망의 문, 어렸을 때,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이 세 가지 표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던 때(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기쁨의 시기(?)
18. 본문에 바알이라는 말이 네 번(8, 13, 16, 17) 나온다. 자세히 살펴보면 용법이 다른 것 같은 게 하나 있다.

몇 절의 바알인가? (셋은 고유명사이고 하나는 보통명사인데 뜻은 '주인'이다)

바알을 섬기면 주종관계가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부부관계가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주인으로 섬기는 우를 범치 말자.

19. 18절에 나오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활, 칼, 전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 뒤의 '평안히 눕
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참고 할 것)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 다시는 징벌을 하지 않겠다는 뜻

2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장가를 들려는데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시는가? 신부에게는 무엇을 요구하
고 계시는가?

의, 공변됨, 은총, 긍휼, 진심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음(남편으로 불러만 다오. 이 새로운 결혼관계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하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21.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토록 괴롭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
에서 힌트를 찾자.

하나님을 몰라서

개유(開諭): 사리를 알아듣도록 타이름

월삭(月朔): 음력 초하룻날 - 즐거운 명절로 지킴

공변(XX): 공평하고 정당하여 치우침이 없음

호세아 3장

1. 건포도 떡은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참고로 야가서2:5 - 원기 회복을 위하여 건포도가 사용된 모양, 삼하6:19 -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옮겨온 후에 모든 백성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준 음식에 이 떡이 포함되어 있음)
고급 음식이었고 우상에게 바쳐진 대표적인 음식이었던 것 같다.
2. 짐 나간 아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 것 같은가?
인신매매에 걸린 모양이다. 노예의 처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3.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간단히 말하면 무엇인가?
몸값
4. 선지자의 아내요 세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는데 이런 아내를 찾으려고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고 떠나는 호세아를 보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충고하겠는가?
때때 치아라.
5. 호세아의 대답은 무엇이였을까?
이런 아내를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듯,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6.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무조건, 애절함, 끝없는, 멍청한, 자기 희생
7.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다만 회복되기 전에 겪어야 할 고통의 시기(포로가 되거나 식민지 생활을 할 것을 암시)에는 무엇이 없는지 6가지 예가 있지만 그것을 두 종류로 정리해 보라.
일체의 정치적, 종교적 활동을 다 빼앗길 것임
1.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자주적인 통치권이나 행정의 부재,
2. 제사, 주상, 예뵈, 드라빔도 없고: 일체의 종교적인 활동마저 없을 것)
8. 보리 한 호멜 반 값은 대체로 은 열다섯과 같다고 한다. 혹시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었다.(예수님은 은 30, 요셉은 은 20에 팔렸음) 고멜의 처지가 노예의 처지가 되었음을 말한다.
9. 1:11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단일 국가로 회복될 것임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해도 온전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 말이 있다면?
그 왕 다윗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다 왕 다윗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함(물론 이 다윗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 그 다윗이지만)
10. 다음 _____에 문맥상 알맞은 말을 써 보자. 이 이야기는 좁게 보면 호세아의 가정사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다. 마찬가지로 좁게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고멜의 몸값이지만, 크게 보면 _____은 _____의 몸값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의 몸값이다.
11. 3장을 현재로 1-3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호세아와 고멜	이스라엘과 하나님
과거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셋 낳음	사랑할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함
현재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연애중	우상 숭배에 몰두함(하나님을 잊어버림)
미래	부부의 도리를 다 할 테니 돌아오라	모든 것을 빼앗으리라, 고치리라, 사랑하리라.

호멜: 한 호멜은 약 228 , 한 호멜 반은 342 = 171되(약 17말)

호세아 4장

1. 대장이 잘못하면 부하들이 벌을 받는 법이고 그것이 결국은 대장에 대한 벌이 된다. 사람들의 죄악으로 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아무 죄 없는 동, 식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시지 않고 대신 누가 피해를 당하는가?

자연(혹은 만물) - 땅에 거하는 자와 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2. 백성과 제사장이 서로 다투는(4, 9) 정도면 부자지간에 싸우는 집안 꼴이니 거의 막가는 세상이 된 셈이다. 그렇더라도 서로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고 한다. 사이 좋게 지내란 뜻인가?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 생각해 보자)

자연환경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니 책임 소재를 두고 싸우지 말라 소용없는 짓이니까.

3. 성경이 만약 우리말로 기록되었더라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를 꺾다'라고 썼을지도 모른다. 어느 말 대신에?

너는 낮에 거치겠고

4.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없다(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

5. 같은 물을 먹고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점수도 더 많이 따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다면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본문은 지적하는가?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함, 영화가 욕이 됨(하나님 없는 좋은 점수나 대학은 더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6.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말은 어른을 책망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백성의 죄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 제사장들의 무엇을 책망하는 말일까?(장외사가 자신의 영업이 번창하기를 비는 마음과 비슷함)

백성들의 마음상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물에 관심이 있음(그들이 제사를 많이 드려서 소득이 느는 것에)

7.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을 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 두 가지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행음하여도 수효가 늘지 않는 것

8.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나무에게 묻고 나무가 대답을 했단다. 단순한 우상 숭배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을지 생각해 보자.

나무를 이용하여 짐을 치는 행위가 아닐까? 예전 코디미의 부채 도사처럼

9. 우상을 섬기는 장소는 주로 어떤 곳이라고 하는가? 또 그곳은 다른 무엇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일까?

산꼭대기나 작은 산 위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 음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

10. 딸과 며느리의 음행과 간음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1) 남자들의 구제 불능성 음행 때문에(또기)

2) 남자들이 주범이고 여자들은 단순 공범인데 주범에게 벌주지 않으니

3) 내버려두는 것 자체가 징벌이 되므로(롬1:24)

11. 호세아가 동쪽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말을 많이 했다. 어디에 또 그런 말이 있는가?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15)

12. 길갈과 벳아웬이 지금은 무슨 장소이길래 가지 말라는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

13.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음 반응을 올림자순으로 정리해 보자.

[노하심, 징계, 쟁변, 버려두심] 노하심 쟁변 징계 버려두심

14.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친히 보고 들으면서도 쉽게 바알을 위시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 우상을 섬기는 방법에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길래 그런지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찾아보자.(예배와 기도, 찬양, 엄숙한 분위기 등과 불신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이나 극장에 다니는 차이라고 할까?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이나 극장에 다니는 것보다 교회에서 삶이 더욱 기쁘다면 그만 하산할지이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말이다)

행음과 술취함(11, 18)

15.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주 원인을 호세아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1, 6, 14)

쟁변(爭辯): 다투어가며 변호함

사위(詐僞): 속일 사, 거짓 위, 거짓으로 속임

투절(偷): 훔칠 투, 훔칠 절(竊)의 속자

뒤대임: 심하게 부대낌(?)

거치다: 비틀거리며 쓰러지다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 북 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된 지파

호세아 5-6장

1. 제사장이나 왕족들이 짐승을 잡는 올무나 새를 잡는 친 그물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잡았다는 말인가?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친 그물이 되었다.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뜻

2. 호세아가 활동한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물질적 풍요와 번영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이런 착각을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풍요와 번영에 대하여 바알에게 감사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한다. (3-5)

3.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왜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는가?

제사용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4. 성경에는 원문 자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가끔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new moon'을 가리키면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란 뜻이 되지만 고유명사인 'New Moon festival' (우리말로 '월삭'이라는 절기)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절기가 형식으로만 치우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우리말의 어느 표현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을까?

새 달(5:7)

5. 우리나라에서는 적기가 내습 하거나 위험이 닥쳐올 때 사이렌을 울린다. 옛날 이스라엘은 사이렌 대신에 어떻게 했을까?

나팔이나 호각을 불었음(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 네 뒤에 베냐민아 적이 온다)

6.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복의 근원이 아니다. 어쩌면 괴로움의 근원일지 모른다. 이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썩, 썩이는 것, 병, 상처, 사자, 젊은 사자.(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복의 근원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7.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한 일 중에 전혀 소용없는 짓을 5장에서 두 가지 찾는다면?

1) 외세(앗수르)를 의지하는 것, 2) 양 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는 것

8.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원인을 이스라엘 측에서 찾으면 무엇일까? 본문에 나온 표현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함, (그 외에: 음란함, 각종 도덕적 범죄, 지계표를 옮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

9. 6:1-3의 말씀은 누구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나중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할 말이라고 해도 옳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10. 징계 후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벌하셨으나 낮게 해 주실 것, 여호와를 아는 것

11. 성경에서 비를 가리킬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도 우리말로는 분간이 잘 안되지만 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해야 옳다. 어느 말 대신?

3절의 비와 같이

12. 죽으라고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향해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할 때 아버지들이 가끔 쓰는 문자가 있는데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본문의 표현을 우리들의 아버지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어 보자.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야 임마! 날보고 우짜란 말이고?'

13. 6장 6절을 외워서 적어보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14. 이스라엘의 범죄가 갈 데까지 갔음을 보여주는 표현을 하나 고른다면?

제사장들이 때강도짓을 함(9)

다불: 산이름이다. 따라서 다불에 친 그물은 어망이 아니라 새를 잡는 그물이다.

올무: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견책(譴責): 심판이나 판결

지계표(地界標):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표시

편만(遍滿): 널리 가득 참

호세아 7장

1.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무슨 관계인가?

이스라엘은 국명, 에브라임은 그 나라의 중심 지파, 사마리아는 그 나라의 수도: 결국은 다 같은 말이다.

2. 치료하려고 하는데 더 악이 드러난다는 것(1)은 의사가 진료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분명히 후자의 경우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왜 치료를 거부할까?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궤사, 도적질, 노략질이 악한 일이라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셈이다. 알콜중독이나 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스스로 더 악화시킨다. 암 판정을 받으면 일단 치료를 거부하다가 더 악화돼서야 다시 찾아온단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찾아오지 않는 환자일지도 모른다.

3. 이스라엘의 죄는 음욕이 불일 듯 하고, 왕과 방백들을 뒤집어 없고(쿠데타), 외세를 의지하는 것 등이다. 어떻게 이런 죄들을 짓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2, 7, 10, 13, 14, 15):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다보니 일이 꼬일 수밖에 없다. 온갖 냄새가 역겹다.

4.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 잠시 지나면 그칠 테니까! 반면에 그치지 않는 장맛비를 피해보겠다고 처마 밑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비를 맞든지 우산을 구하든지 해야 한다! 장맛비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1-3절에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죽었다!' 빨리 돌아서라는 경고다. 감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다. 그런데도 악한 행위에 둘러싸여(=악한 행위를 옷처럼 감고) 버젓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가(2) 어느 한쪽 구석에 탈이 난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이 악향으로 둘러싸인 꼴이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모른다.

5. 이스라엘이 기쁘게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기쁘게 하느라고 바쁘는가?

왕과 방백: 악한 말과 거짓으로 왕과 방백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권력자에게 빌붙어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권력자를 기쁘게 하려면 백성을 압제할 수밖에 없다. 왕과 방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는가?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과 방백을 기쁘게 하려면 백성을 수탈하는 수밖에!

6. 간음하는 자를 왜 달궜진 화덕에 비유했을까(4)?

음욕이 끊임없기 때문: 이 표현에서 '달궜진'이란 말은 흥분보다는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냥 화덕이 아니라 쉬지 않고 달구어지는 화덕이다. 반죽하는 동안 잠시 멈출 뿐 계속 달아오른 화덕이다. 못된 짓도 좀 쉬어가면서 하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지런하더라(미 7:3).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지(딤후 2:14)!

7.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는 것'과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 것'의 공통점이 뭘까?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것: 왕의 잔치날에 술을 띄어 되도록(=술의 뜨거움) 마셔놓으니 방백들은 열에 들떠 헛소리하는 것(=병) 같고, 왕은 자기를 놀리는(=오만한 자) 방백과 놀고 있다! 술에 취해 위아래도 모르는 상태를 가리킨다. 옛 은사를 대접한다고 술집에서 열심히 마시더니 어느 새 선생님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라! 그러면서도 웃고 떠든다! 맑은 정신으로는 쳐다볼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장면이다.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기도 했다.

8.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6-7절에는 식은 화덕과 뜨거운 화덕이 바탕에 깔려 있다.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식은 화덕은(=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음모를 꾸미는 것, 뜨거운 화덕은 음모를 실행하는 것이다. 음모의 내용은 재판장이든 왕이든 엮어버린다. 식은 화덕이라고 무심코 손을 댔다가는 화상을 입는다. 북 이스라엘의 역사 200년 동안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특히 말기에는 연속적으로 네 번 일어났다(살렘, 르나헴, 베가, 호세아: 왕하 15장, 17장). 이런 무질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생기는 현상이다(7).

9. 전병은 뒤집어 가면서 앞뒤를 고르게 구워야 한다. 뒤집지 않으면 한 쪽은 타고, 반대쪽은 설익는다.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 됐는가?

하나님대신 외세(이방인, 앗수르, 애굽)를 의지하다가: 다른 나라의 힘만 빌려오려고 해도 결국은 그들의 문화, 우상까지 들어오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구별됨)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것저것 섞어버렸기 때문이다(시 106:35).

10. 이스라엘이 온갖 악을 행하고(1-7), 이방과 혼잡 되었으니(8) 이제 어떻게 될까(9)? 물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른다.

곧 죽을 것: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자기 힘이 아니다. 이방에 의지하여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방의 힘은 자기 힘이 아니다. 도와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야금야금 먹어치운다(9a). 여기서 백발이 열륙열륙하다는 것은 늙어 죽을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런 형편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도 한창인줄 알고 못된 짓에 열심을 내는 노인네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그러다, '말팔 했는데?'

11.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10절의 '이 모든 일')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10, 13): 교만해서 그렇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10)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말한다'는 것이니 '얼굴에 교만하다고 쓰였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12. '어리석은 비둘기'란 먹이를 찾아서 그물로 날아드는 비둘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

답대가리: 머리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왜 하필이면 답이냐?'고 물었더니 머리가 작아서 그렇단다. 하나님 대신 애굽이나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이다(왕하 15:19-20, 17:3-4)

13.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을 뿐'이다. 어디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곡했을 뿐이란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그저 육신의 필요만 추구한다는 의미) 모이며 하나님을 거역했다! (참고, '모이며'를 번역에 따라 '몸을 찢으며'라고 하기도 한다)

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습시켰다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긴 예가 그렇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전쟁, 7일 동안 들기만 해도 무너지는 여리고, 칼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던 벧호론 전투, 겨우 300명이면 알맞다면서 3만 명을 돌려보내게 한 기드온... 그렇게 연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케 하면 뭐 하나 되레 못된 짓을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공들여 키우지나 말 것을?

15. 호세아의 메시지는 참으로 명확하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눈에 보이듯이 잘 그려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림처럼 보이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4가지 정도)?

달아오른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빛맞은 화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림처럼 보이게 설명하는 것은 훌륭한 능력이다.

호세아 8장

1. 어떤 경우이기에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걸까?

적군이 쳐들어오기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 일이 난다. '나팔을 네 입에' 이것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다. 모든 성도는 일종의 나팔수다.

2.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대적도 감히 침범할 수 없다'고 믿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의 집은 독수리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왜 여호와의 집이 그렇게 힘이 없을까? 조상들은 조그마한 법궤를 앞세우고도 전투에 승리했다고 하던데?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기 때문(1): 이스라엘이 소중하게 여기는 여호와의 집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사온 선물과 비슷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집만 잘 가꾸면 그 집이 오히려 더 보기 싫은 것이 된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지, 정, 의... 의 소유자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유로 보는 것이 좋겠다. 복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다.

3.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아노라고 고백할까?

대적이 되칠 때: 꼭 이렇게 일이 터져야 하나님께 매달리나? 미리, 평소에 하나님의 잘 섬기면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예방이 쉽고도 싸게 치인다. 다 죽을병을 고치는 의사보다 아예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명의라던데...

4. 흔히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나가보면 집에 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훨씬 크다. 여우를 피하려다 곰을 만난다. 선을 버리면 선 없이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무엇이 따라오는가?

대적: 주인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더 악한 주인이 집을 차지하는 법이다(마 12:43-45).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는 온갖 귀신들이 설친다.

5.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선을 버렸나이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

매사를 내 뜻과 상관없이 너희 좋은 대로 처리하지 않았느냐?(4):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왕을 세우고, 방백을 세우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백성들이 데모를 하다가 결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4). 거기다가 우상까지 세웠으니 결과는 파멸뿐이다. 성도가, 교회가 행한 수많은 일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실 일이 많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표방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부리는 일이 어디 한 들어야지!

6. 웬 송아지인가? 기술자(=공장,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던 송아지 형상, 우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빗대어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본딴 것이다. 원조는 애굽이고, 시조는 아론(출 32:4). 중시조는 여로보암이다(왕상 12:25-33).

7. 이스라엘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아무런 소득이 없다. 왜?

바람을 심었으니: 씨앗이 아닌 것을 심은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혹시 싹이 난다 해도 그것은 쫄기도 이삭도 없는 바람이며 아무리 공들여 키워서 추수를 한다 해도 광풍일 뿐이다. 해롭다는 뜻이다.

8. 기뻐하지 않는 그릇은 어떻게 하나?

깨든지, 버리든지: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운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아쉬움도, 미련도 없이 그냥 부숴버린다. 이빨 빠진 그릇도!

9. 홀로 처한 들나귀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자(참고, 렘 2:24).

제멋대로(=홀로 처한) 향방 없이 뛰어다니는 처량한 짐승: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과 대조적인 표현이다.

10. 돈으로 산 애인은 애인이 아니다. 참된 사랑을 얻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바 돈으로 산 애인은 무엇을 가리키는가(두 가지)?

열방(10)과 제단(=우상, 11): 앗수르를 위시하여 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나 아무런 위로도 소망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될 것이다.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용을 써도 하나님께서 불들어와서 심판하실 것이다(10절의 '모으리니').

11. 만 가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출 20:2)?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 십계명의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하셨다. 너희는 내 백성이란 뜻이요, 너희는 내 자녀란 뜻이다. 그런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12. 율법과 제물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율법이 출애굽기라면 제물은 레위기다: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았으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이런 감격,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다. 이스라엘이 버린 언약(2)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율법과 제사제도다.

13.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갈까(신 28:68)? 돈을 들고 간 곳은 앗수르였는데?
출애굽 이전 상태로 되돌려 버린다는 뜻: 율법을 주신 것이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은 출애굽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애굽은 이방의 압제자에 대한 상징이다.
14. 북 이스라엘을 책망하다가 느닷없이 왜 유다를 언급하는가(14)?
유다도 마찬가지다(6:11, 5:10-13)! 북이스라엘의 왕과 달리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정통성을 잘 이어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 하는 짓은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호세아 9장

1.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1)?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프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한 구절은 '이방 사람처럼'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레 23:40, 신 12:7, 14:26). 다만 그 이유가 '이방 사람처럼'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땅도 빼앗기고, 좋아하던 것도 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3). 웨스터민스트 신약고백서 교리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중의 하나다.'
2.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댓가를 받는다는 말인가? 음행의 값이 무엇을 가리킬까?
바알이 준 풍성한 수확: 바알을 농사의 신이라고 여기고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 음행이라고 한다. 그렇게 바알을 숭배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고 믿으니 그것을 가리켜 음행의 값이라고 한다.
3.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것은 타작마당이나 술틀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저희를 기르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2-3)?
하나님께서 소출도 주지 않고(2) 땅마저 빼앗아 버리겠다(3)는 뜻: '정말 바알이 주는 것인지 확인해 볼까?' 하시면 소출이 전혀 없다. 음행의 값이 너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노름해서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4.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간다고? 훗날에도 그런 일은 없는데?
상징적인 의미다: 출애굽의 반대개념으로,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노예상태로 전락할 것이란 의미다(8:13, 신 28:68).
5.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얼마나 더러운지 알만한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바벨론에서의 거부: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도 고역인데 이유야 어찌하든 먹어서는 안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가!
6.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이스라엘이 전혀 슬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일이 본문에 있다면?
여호와께 제사(전제, 제물)를 드리지 못하는 일(4):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아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능력이 없어서 아파하는 연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드릴 것도 없지만 받고 싶어하지도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다(4). 그러면 주일에 뭘 하지(5)?
7.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난 싫다. 너희나 잘 먹어라: 전제로 드릴 것도 없고, 있는 것이라곤 초상집 제물(= 거상(상복)입은 자의 식물, 19:14-16)처럼 부정한 것뿐이다. 아마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서 먹을 것마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이리라.
8. 여호와와 절일에 할 일이 없다는 것(5)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셈이다. 그러면 멸망이 필연적이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에 살아남으려면 도망을 쳐야 한다. 그러면 도망치는 일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애굽이 받아주고 하겠지만(=저희를 모으고) 기껏해야 장례나 치러주겠지(놈=렘피스: 고대 이집트 수도의 하나) 그러면 들고 간 은 보물도 아무 소용이 없다(6) 거기서도 쇠잔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9.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옛날에만 그랬던 게 아닌 모양이다. 며칠 전에도 목사가 강도질을 하고, 목사가 부인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했단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브아의 시대(9, 사 19:10-20:48):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보니 레위인이 첩을 두고,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강간해서 죽이고, 레위인은 시체를 토막 내서 지파별로 보내고,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다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절단이 나는 지경에 이르도록 패괴한 시대를 가리킨다. 파수꾼에다 선지자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끝장이 나는 게 당연지사다.
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 절연, 결별할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은 말 하는 격이다. 왜 그랬느냐고 서로 싸울 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난날을 돌아보며 좋았던 것만 회상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말이다. 광야의 포도,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얼마나 반갑고, 맛있고, 시원했을까마는 다 지난 일이다. 과거가 아름다울수록 현실은 더 아프다.
11. 요셉이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고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고 하였다(창 41:52). 그래서 '에브라임'이란 이름의 뜻은 창성함이다. 실제로 에브라임은 창성하게 되었고 북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몸을 드리니(10c) 무슨 일이 생기는가(11-14)?

모든 것이 사라짐(장성함의 반대): 영광이 새 같이 날아가고 잉태함이 없을 뿐 아니라 있는 자식마저 다 죽어버린다. 자식이 사라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떠나심으로 저희에게 미친 화(12)가 바로 그런 것이다.

12. 두로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섬에 세워진 도시다(알렉산더가 공격하느라고 방파제를 세워 육지와 연결됨). 외적이 포위하기도 어렵고 장기전을 펼치기도 어려운 곳이라서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라고 한다. 그게 다 옛날 얘기다. 지금은?

외적에게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다(13).

13. 선지자의 기도가 머 이래?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달라고?

태어나봐야 죽임을 당할 바에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역설적인 기도다.

14. 길갈은 가나안 전투의 본부가 있던 곳(수 10:15, 43),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던 곳이며(삼상 11:14), 선지학교가 있던 곳이다(왕하 4:38-41)! 그런데 왜 악이 길갈에 있다고 하는가?

여로보암이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는데 길갈에서도 우상 제사를 드렸던 모양이다. (암 4:4) 너희는 벧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15.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11-17)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는 자식이 없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쫓겨나 유리함(16, 17): 하나님의 안식을 괜 아담, 최초의 살인자 가인 때부터 인류가 누리게(?) 된 큰 형벌이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방으로 포로가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16).

호세아 10장

1. 이사야는 유다를 향하여 엉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책망했는데(사 5:2),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한다. 어떤 점에서 같은 얘긴가?

결과적으로 주인이 먹을 수 없다는 점이 같다: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주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안 쥐서 못 먹는 것이나(호) 먹을 수 없는 것을 쥐서 못 먹는 것이나(사) 결과는 동일하다!

2.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감사는 우상에게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이 그렇게 불안전하더라: 고생 고생해서 공부시켜놨더니 더 큰 도둑이 되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방탕해지더라! 죽을 썰서 개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식이 있어야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는다.

3. 두 마음은 1 + 1 아닌가?

1 + 1 = 0 인 경우가 있다. 오징어 + 쇠고기, 새우 + 돼지고기가 그런 예이다. 맛이 완전하게 변해버린다. 애인이 둘이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갈라서든지 아니면 다른 애인을 쫓아내버린다. 재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시는 것은 다른 애인을 쫓아내는 셈이다.

4.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데 왜 왕이 없을까(3)? 왕이 백성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외적에게 정복당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14, 15): 왕이 적군에 사로잡힌다면 왕이 없는 셈이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재판에 헛된 말이, 거짓 맹세가 난무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과 같은가?

밭이랑에 돌는 독한 인진 같다(4): 밭에 난 독초는 숲 속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채소인줄 알고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억울한 재판으로 일생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자. 잘 갈아놓은 이랑에 왜 독초가 나는가? 정상적이라면 그런 일은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결과는 무서운 것이다.

6.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하여 가는 길에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다(창 28:11-22) 그래서 그 곳을 '하나님의 집' 즉 벰(=집)엘(=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곳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벰아웬'이라고 부른다. '아웬'이 무슨 뜻일까(8절 참고)?

우상, 사악함: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던 벰엘에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7. 송아지를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렸다가는(6) 욕을 먹지 않을까?

단순한 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다, 이스라엘의 신(?)이다: 완전한 항복을 뜻하는 것이므로 가장 귀한(?) 예물이다.

8. 우상숭배의 말로는?

저절할 절규: 슬프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5-6) 결국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할 것이다(8). 계시록의 종말의 묘사(계 6:16)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네!(눅 23:30)

9.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을 면하였단다(9). 사사시대가 참으로 악한 시절이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절단이 날 뻔한 것 외에 다른 지파는 멸망을 당할 만한(=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은 없었다. 새삼 그런 얘기를 꺼내는 저의가 뭘까?

이제는 그런 전쟁을 당하게 된다. 문맥이 일관되게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암시하고 있다.

10. 두 가지 죄가(10)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한 가지 죄인지, 두 가지 죄인지... 이스라엘의 죄는 이것이 틀림없는데? 어쨌거나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이것은 잘 나가던 과거 얘기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매우고 사람을 태워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게 하겠다: 길이 잘 들여진 소에게 곡식 밟기란 즐겁고 기쁜 일이다.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랬다(신 25:4). 자유롭게 곡식을 밟으며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다. 그런 소에게 멍에를 매우고 사람을 태워서 힘든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11. 별하리라(9:9), 사랑하지 않으리라(9:15)! 버리리라(10:3)고 하시지만 숨겨둔 하나님의 속 마음은 뭘까(12)?

여호와를 찾으라(회개):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복을 쏟아 부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12. 이스라엘은 악을 심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13). 이제라도 농사 품목을 바꾸어야 한다. 무엇을 심어 무엇을 거두라는가?

의를 심고 공휼을 거두라: 이스라엘이 심은 악은 자신의 길과 힘을 의지한 것(13) 즉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일과 자신의 힘과 피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같은 일이다.

13. 산성이 휘파되고 어머니와 자식이 한꺼번에 죽고 왕이 멸절되는 일(14-15)이란 전쟁에 패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이 악을 심고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

호세아 11장

1. 종살이 하고 있는 어린 녀석을 불쌍히 여겨 아들로 삼고 잘 키웠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배신(2)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란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시대를 뜻한다. 즉, 출애굽 사건을 가리킨다. 그렇게 불러내어 단단히 교육을 시켜 잘 살도록 온갖 터전을 다 마련해 주었는데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참고, 신 32:11-15). 하나님은 패역한 아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2. 1절은 마태복음 2:15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애굽 피신의 이유로 인용된다. 그릇 인용되지 않았는가?
 얼핏 보면 잘못 인용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 이중성, 즉 일차적인 의미와 이차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먼 훗날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표한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는 고생을 당하고 다시 유대로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 죄인이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은 다 같은 내용인 셈이다.
3.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가 부를수록 더 도망을 가는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3)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이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고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여겨지는 모양이다. 이 땅의 수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런 아픔을 겪으며 산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부모를 모르는 셈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6:3).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가르쳐도 안 되고, 때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다.
4.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안으셨는가?
출애굽의 전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출 19:4, 신 32:11)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자상하고 세밀하셨다.
5. 하나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문제아들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부모의 문제다. 인생이 이 모양인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너무 많이 한 탓이다. 아직은 매를 들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일 뿐 이제 징계를 하려고 한다(5). 매를 들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잘 해야지!
6. 사람의 줄이 뭐야(4)?
짐승의 줄과 대조적인 것: 곧 사랑의 줄이다. 사랑의 줄은 줄이 아니다. 짐승의 줄은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맨 줄이다. 사람은 줄로 매서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목에 매인 멍에가 있다면 오히려 풀어주셨다. 마치 음식을 먹기 편하게 짐승의 무거운 멍에를 벗기는 것처럼!
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신 17:16).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하다가(출 16:3, 민 14:2-3)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애굽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더 무서운 앓수르에 집어넣는다(5):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다.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러니 심판이 없다? 그렇게 총삭델 일이 아니라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야 한다. 물론 심판을 받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볼로 심판하신다. 처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뜻이다. 매를 더 맞으려고 애를 쓰는 짓이다(사 1:5).
8.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날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즉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8-9절: 매를 드는 부모의 속마음과 다를 바 없다. 자식을 버리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성읍이다(신 29:23).
9.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9)?
한번 맺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뜻: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실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의 기본은 말의 신실함에 있다.
10.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고? 포효하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데?
 사자의 포효는 대적을 향한 것일 뿐이다. 탕크를 앞세우고 보병이 따라 오듯이 무서운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도는 전진한다.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다. 계시록의 그 무서운 재앙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1.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점에서 새 같고, 비둘기 같을까?
정확하고 빠르게 날아든다: 새가 둥지를 정확하게 찾아 날아들 듯이 저희 각자의 집에 정확하고도 빠르게 찾아올 것이다.
12.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장차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8-11). 그렇다면 12절은 무슨 내용인가?
매를 맞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현실: 7절의 반복인 셈이다.

호세아 12장

1. 에브라임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먹었는가?

방향하면서 굶었다: 열심히 견고 부지런히 먹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것이다. 목표도 없이 부는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방향이다. 그것도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따라 갔으니! 앗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뜨거운 바람을 따라가서 모래가 날리는 바람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견고 먹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 짓인가!

2.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면서 거짓과 포학을 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앗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권력, 재물, 명예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런 것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들은 척도 안겠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문제는 인격이 없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힘은 악한 짓을 저지르기 쉽다는 것이다.

3. 야곱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도사견이다. 교활할 뿐 아니라 욕심도 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왜 울었을까?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천성적으로 교활하고 욕심 많은 야곱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울면서 매달려 복을 받지 않았느냐?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다.

4. 야곱이 베엘에서 만난 것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난 일 아닌가? 순서를 무시한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베엘에서 야곱을 두 번 만나주셨다(창 28:10-22, 35:9-15).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두 번째 만남이다. 처음 베엘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야곱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셨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 하신 약속을 온전히 지키셨음을 확인하신 것이 두 번째 베엘에서 만남이다.

5. 하나님께서 베엘에서 야곱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야곱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이다(참고, 신 5:2-2, 29:14-15).

6. 여기서 느닷없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임을 강조하는 셈: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출 3:14), 자존, 즉 영원불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말이다.

7. 6절의 '그런즉'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실 것이므로!

8. 스스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했음에도 어떻게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고 할까(7-8)?

상인(=원어상으로 가나안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관행, 즉 다들 그렇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여기지 못한다. 상인들이 하는 말을 누구도 끝이끝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그런 행위를 본인들도 불의라고 여기지 않는다. 불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고약한 일이지만...

9. 장막에 거하는 명절은 초막절이다.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던 것처럼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해주랴?'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 같은가?

출애굽 후 광야에서 고생하던 상태로 되돌려 주랴? 의식상 하던 일을 실제로 겪게 해주랴?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자고 가끔 험한 음식을 나누지만 그것은 기념일 뿐 더 이상 험한 음식도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다시 겪어보겠느냐는 것이다. 출애굽 시의 광야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었지만 다시 겪게 되는 광야생활은 혹독한 징계다.

10. 여로보암이 처음에 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이 단과 베엘이었는데 길르앗과 길갈에서도 우상을 섬겼다고(11)?

우상숭배가 그만큼 극심했음을 보여준다: 길르앗은 도피성이었고, 길갈은 가나안 전쟁 초기에 본부가 있던 곳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곳에서도 어김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11. 또 야곱 얘기를(12)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지키시고 돌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다니! 야곱을 지키고(12) 그 후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고(13)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과 이상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보호했는데(10) 하나님을 격노케 하다니!

12. '피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14)는 것이 무슨 뜻일까?

피값을 갚아야 한다, 즉 죽어야 한다는 뜻: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격노케 한 것이 원인이며 결국은 수치를 당케 하실 것이다.

13. 결국 야곱과 이스라엘의 닮은 점은 무엇이며 닮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닮은 점은 자기 피로 살며 고생하는 것이고(12) 닮지 않은 점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설복 당했고(4)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점(13-14)이다.

호세아 13장

1. 잘 나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왜 그런지 에브라임 지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
잘 나가던 지파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쁜 일도 앞장서게 되기 때문: 부지런한 사람은 좋은 일에도 부지런하지만 악한 일에도 부지런하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도 잘 하지만 못된 짓도 잘 할 수 있다. 독서에 좋은 계절은 늘기에도 좋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고(창 48:8-20), 여호수아, 여로보암, 드보라, 압돈, 사무엘 등의 인물이 나왔다. 기드온(삿 8:1)과 입다에게 불평했다가(삿 12:1) 크게 싸우기도 했다.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였다. 잘 했어야 했는데...
2. 에브라임의 죄는 우상을 섬긴 것이다. 거기에 더 보탠 죄가 있다면?
징계를 받아도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것(2): 매를 맞고도 더욱 반항하는 것은 정말 죄가 크다.
3.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가?
자기가 만든 것을 숭배하는 일이니까: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하고 숭배한다는 뜻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신으로 섬기는가? 하고, 사람이 잡아서 삶은 돼지 앞에 절하는 판이니 기술자가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든 것은 효험이 좀 있으려나?
4.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침 구름, 이슬, 쪽정어, 연기 같단다. 핵심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 사라지는가?
아침 구름과 이슬은 해가 뜨면, 쪽정어는 광풍이 불 때, 연기는 굴뚝에서 나갔을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깨끗하게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이 얼마나 운치가 있다고? 쪽정어나 연기도 잘만 쓰면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광풍이 불거나 굴뚝에서 나가면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만큼 두려운 것이다.
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대면하셨다. 그 때 공적으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4, 출 20:2-3).
6.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원인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것: 잘 돌아주고 (5절의 '원고') 잘 먹였더니 그래서 부모를 잊어버리거나 박대를 한다면? 잘 돌보아준 친 자식은 제가 잘 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잘 못 거두어준 들어온 자식은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게 인생인가!
7.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로 변해버렸다(7-8).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은 어느 짐승에게 찢기는가?
돌짐승: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다. 실제로는 돌짐승들에게 찢긴다. 야생 동물이 설치하는 것은 마을이나 성읍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황무한 땅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9절의 '뺨망').
8.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는 그 분을 대적할 수 있는가(9)? 우리 인간사에서 이와 비슷한 예가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수고하는 부모나, 배우자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일, 바른 말하는 충신보다 들기 좋은 말 하는 간신을 더 신뢰하는 일,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 입에 단 음식을 좋아하는 일, 그리고 보니 부지기수네!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자칫하면 배신하거나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을!
9. 왕을 달라고 한 것(10)이 사울 왕을 가리킬까, 여로보암을 가리킬까?
여로보암: 북 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니까 유다왕 르호보암과 대적하여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10. 에브라임의 불의를 봉지에 담아 잘 묶은 다음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 어디다 쓰려고?
심판 때의 증거물로 쓰려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산문에서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다.
11. 산문에서 지체하면 어떻게 되나?
죽거나 장애자가 되거나: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하기 전에 머뭇거리거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자들의 모습이다.
12. 재앙이나 심판을 선포해도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14절(마지막 문장은 제외):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징계가 있다고 경계하는 것 자체가 징계가 목표가 아니란 것을 의미한다.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누우침이 없다.' 그야말로 마지막 경고다.
13.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닥치는가?
외적의 침입: 두 가지 재앙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한 가지다. 동풍, 즉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앗수르의 침입을 비유하는 것이다.

호세아 14장

1. 7장부터 13장까지 빼먹고(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 14장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4장을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인데...

1) 수없이 반복되는 심판이나 징계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같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죽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진짜 죽일 마음이 있으면 미리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2)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복을 말하지 않는 징계는 저주일 뿐이다)

2.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 1)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을 드리라(진실한 고백)
- 2) 앓수르(외세),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말은 군사력을 의미)
- 3)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3. 6:4에 나오는 '이슬'과 14:5의 '이슬'은 뜻이 전혀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6:4: 아침 햇살에 쉽게 사라지는 것, **14:5:** 비와 같은 역할(식물에 필요한)

4. 이스라엘이 장차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소성하고 꽃을 피우며 가지가 뻗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튼튼히 설 것이라고 한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고치고 사랑하기 때문에(이스라엘이 회개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음)

5. (호세아서 종합) 그의 결혼생활을 영망진창이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 아이들의 이상한 이름, 부인의 가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가 이런 역경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자신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한 하나님의 고통임을 아는데서(하나님이 마음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

소성(蘇醒): 잃었던 정신을 다시 찾거나 깨어남